동국대 발전 위해 불교계 107년 '보시'

명진학교 개교 후 임아 무상기부 기금 권선 시작

2013년 현 해 기준 기증액 87% 차지

종림대 발전 염원 나눔릴레이 계속돼

종립 동국대에 대한 불교계의 보시가 무준히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최근 동국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들어 6월11일 현재 학교가 모금한 기금은 253억 원. 이 가운데 불교계 기부는 220여억 원인데대들을 시설 포함에 이른다. 전체 기증액의 87%가 불교계 보시에 따른 것이다.

교육시설 및 연구 인프라 개선, 장학기금, 중앙도서관 기금 등에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권선이어지고 있다. 원로의원 인환스님이 1억 원을 기부하고, 부산 영일암 주지 현은스님이 6억 원을 쾌척한 것은 물론 여러도보교원장 현은스님이 매년 1억원씩 학술원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불교계의 동국대 사랑이 각별하다. 종림대 발전이 곧 불교계 발전이라는 공감은 후 100년이 흘러 넘는 동안 불교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으며 성장한 것이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인재양성이 곧 구국의 길임을 꿰감한 조선 불교계 스님들과 불자들이 명진학교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1922년 12월30일 전국 31 본산 주지대표 해동(김경유 주지)스님을 비롯한 27명이 중앙 학림을 재건을 결의했다. 불교사범학교, 불교고등강숙, 중앙학림으로 이름을 바꾼 명진학교가 3-1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강제 폐교된 상태였다. 1924년 3월 전국 사찰에서 6만1420원(당시 원폐기준)을 기부해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을 설립하고 중앙학림 개교를 추진했다. 1927년 10월 서울 명륜동 1번지에 학교 건물을 새로 짓고, 이듬해 불교전수학교로 문을 열었다. 1929년 3월에는 전국 각사찰에서 40만원(당시 원폐기준)을 거부했다.

보시 정신은 해방 후에도 면주지 않았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부산 대각사를 임시캠퍼스로 제공한 것도 그 일환. 통합종단 출범 후인 1963년 11월 동국학원이 재출한 학교법인을 위한 임아 류월경선 씨의 종단에서는 전격 수용했다. 당시 중앙종회는 "동국학원 재단법인에 단장한 계획을 통해 지정된 사찰임을 승인하고, 그 집단 면적 확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결의했다. 그 결과 동국학원에 무상 기부한 임야는 1만 7386천보에 이른다. 개교 당시 불교계 선지자들의 재원 출연에 이어 종단 차원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 꾸준히 지원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밖에도 불교계에서는 동국대 발전을 염원하는 기부가 이어졌다. 지난 2002년 9월27일 동국대 의대 · 원외의무부 불교원원이극금씨 동국대 일산병원이 준공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불교계뿐 아니라 학교의 수원인 '수도권 병원' 건립이 추진되면서 사찰과 스님, 불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모금에 동참했다.

동국대는 "종림대 발전을 염원하는 불교계의 나눔 릴레이가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여러한 동국대학교의 열보에 불교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보내고 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상수 기자 scoleo@buhgyo.com

"학교발전은 공통된 마음"

종림학교관리위원장 덕운스님

"많은 스님들의 노력에 의해 상보제가 보존되어 왔고 동국대 발전이 있었음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조계종 종림학교관리위원장 덕운스님(사진)은 종림 동국대 발전을 위해 종단이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해 왔음을 강조했다.

위원장 덕운스님은 "그런데도 최근 총동창회가 주최한 동국포럼에서 (동창들이) 종단을 난타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대로움을 느꼈다"면서 "종단은 물론 어사스님들이 학교발전을 위해 희신을 다했음에도 불도덕하고 무능한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덕운스님은 "동문회 안 낳 음의 모고, 재가자 여럿을 줄이거나 다른 곤란 제한하는 것 아니다"고 밝혔다. "아직 종단이 제가 이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숫자를 줄이는 대신 승려이사들을 늘려 동국대 발전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위원장 덕운스님은 "학교 발전을 염원하는 것은 모든 종도들의 공통된 마음"이라면서 "비은 뚜에 받이 굳어지다는 말처럼, 동문은 물론 불교계의 종단이 합심해 총림대학인 동국대의 발전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수 기자 scoleo@buhgyo.com

승가고시 2~3급 핵심 주제어 '공지'

고시홍, 부처님 기르침 구현방안 질문 출제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연스님)는 출가전지 10년 20년이 된 스님들을 대상으로 치르는 승가고시 는 슬문제 핵심주제어를 17일 공개했다. 올해도 시대에 맞게 부처님 가르침을 구현하는 방안을 묻는 질문들이 출제됐다.

먼저 10월30일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시행되는 2급 승가고시는 논술과 구술이력관기로 진행된다.

두 분야 모두 불교를 현대사회에 어떻게 접목시킬 지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룬다. △육조단경의 시대적 의미 △불교의 구현 △(화엄경) '십회향품'과 대승불교정신의 구현 △현대사회에 있는 다양한 법회의 형식과 내용의 제안 △현대인의 생활문화도시생활, 주의길 근무에 있는 전법교교 방안이 대표적이다.

오는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3일간 치러지는 3급 승가고시도 새로운 모교방안을 묻는 질문이 다수다. △성불을 통한 수행과 중생교화 △불자의 기부문화 활성화와 사회에 확대 방안 △현대사회의 힘들운 의라 전법 보교 등이 그 예다. 이와 함께 3급에서는 조계종사가 공통필수로 출제돼 △1962년 대한불교조계종 출범이후 50년의 조종과 성과 △100년 대한불교조계종 개혁불사과정과 의의 △대한불교조계종 종헌의 정신과 주요 내용을 묻는다.

각급별 승가고시 핵심주제어와 응시방서 및 수험이력서는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tcurato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현경 기자 eonsaim@buh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9일 중앙신도회 부설 남미대중은넣이 주최한 한복이라리 캠페인에 후원의 손기업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바라미 성공적"

협찬사 대표 11명 초청 공양 총무원장 자승스님, '감사패'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중앙신도회 부설 남미대중은넣이 주최한 행복바라미 캠페인에 후원해 준 기업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9일 한국불교여사회중앙대표 4층 집견실서 행복바라미 캠페인 문화행사 후원협찬사 대표들에게 감사패를 들 수여한 뒤 사찰음식으로 점심공양을 가졌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대한항공과 대우건설, 롯데코리아, 대림산업, 신안건설산업, 한국수자원공사, 구산토건, 1B스포츠, 오리온, 한양, 신용카드사위원장위원회 등 행복바라미 캠페인 문화행사에 후원한 기업체 대표 11명에게 감사패와 함께 선물로 108한주를 수여했다.

감사패 전달과 환담에 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기업체 대표들은 점심무무심심도 자리를 옮겨 사찰음식으로 점심공양을 가졌다.

한편 이날 감사패 전달에는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장 심경스님과 이기홍 남미대중은넣 이사장, 김규환 구산토건 전무, 장상진 1B스포츠 부사장, 임승섭 오리온 마케팅실 1MC팀장, 오승환 신용카드사위원장위원회 종합기획부 팀장 등이 참가했다.

박만혁 기자 pamhee@buhgyo.com

"잘못된 판단으로 심려 끼쳐 죄송"

정창수 인천국제공항사장 신임 인사차 총무원 예방

정창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임 사장(사진)이 지난 20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공항 내 전통등 설치를 거부했던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정창수 사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해지, 당시 일은 결과적으로 부실하고 왕몇된 관단이었다"며 "신임 사장으로서 향후 재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인 인천공항을 방문해 4층 불교문화 전시관도 보고, 내년 연등회 전통등 설치 장소, 기간 등 두루 살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은 "인천국제공항은 한국의 관문으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대표하고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곳"이라며 "신임 사장 취임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문화융성은 국가브랜드를 제고하고 경제부흥을 이루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연등회, 템플스테이 등은 전통문화를 협으로서 국가브랜드를 제고하는 중요한 국가정책 중의 하나임을 인식해야한다"고 말했다.

어현경 기자 eonsaim@buhgyo.com

본·말사 주지 인사

(6월20일 종무회의)

덕선스님 전영 불다사

원법스님 부산 선림사

성정스님 일랑 수덕사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과정 인증기관

쉽게 배우는 불공, 시식, 다비의식 강좌

대 상 : 대한불교조계종 모든스님

교 수 자 : 대한불교조계종 어산어장 동주원명스님
대한불교조계종 교수사 정오스님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연구소장 혜일명조스님

날 짜 : 2013년 **7월 한달간**, 매주 화요일(총 5회)

시 간 : 오후 2시 ~ 5시

교 재 : 승가의범 (동주원명 엮음, 홍월사)

준 비 물 : 가사, 장삼, 요령, 목탁

비 용 : 20만원(교재비 별도)

연수점수 : 30점 인정

장 소 :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9길 56-12, 홍월사

주차	날짜	시간	강의내용	교수명
1주	7월 2일	오후 2~5시	불공	동주스님 정오스님 혜일스님
2주	7월 9일		각단기도 (칠성, 산신, 용왕, 산왕)	
3주	7월 16일		관욕	
4주	7월 23일		시식	
5주	7월 30일		시다례(다비)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학장 동주원명

문의처 (02) 6342-3100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9길 56-12 홍월사 www.kbtca.or.kr